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Near Korea
<p>❖ 목적</p> <p>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협력학교로서 100일간의 독도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가 앞장 서서 직접 발로 뛰며 내·외국인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p> <p>❖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p>논리적이고 명확한 독도 역사 사료 등 다각도로 독도 체험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음. 이를 토대로 독도 홍보 피켓을 제작하여 독도를 모르는 내·외국인을 직접 찾아가서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함.</p> <p>❖ 특색 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p> <p>학교 내 동아리 활동, 경복궁, 인사동, 이태원,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림. 독도 체험관에 가서 우리가 몰랐던 독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가고 그 곳에 있던 반크 추천도서인 ‘강치야 미안해’를 직접 읽어보며, 독도 탐방 전에 배경 지식을 쌓고 느낀 점을 토론을 통해 서로 공유함. 울릉도에 있는 안용복 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있는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우리 선조가 어떻게 독도를 지켜냈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됨. 독도 접안에 성공하여 많은 연습을 통해 준비한 플래시 몹을 통해 내·외국인 탐방객들에게 독도에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독도경비대원들을 만나서 응원의 말을 전달함.</p> <p>❖ 주요 성과</p> <p>우리가 독도에 대해 알아가면서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령층과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독도를 홍보함으로써 독도에 대해 한번 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p> <p>❖ 소감 및 일반화 계획</p> <p>100일간의 독도체험 활동을 하기 전까지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 했지만, 여러 활동들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도에 대해 알지 못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지속적으로 독도를 모르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조금 더 독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행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보다 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 관련 캠페인 등 더 나아가서 청소년 연대 구축 등 사이버 외교 사절단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펜팔 활동을 통해 세계 곳곳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p>	